

## 25년 2월 목회일정

2일(주일)	정기제직회
9일(주일)	성찬가족심방
1-2월(오후)	<기도 :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송영>강설
7(금)-8일(토)	두교회 중고대연합수련회(송정 호호하우스)
22일(토)	유년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예배당)
7일(금)	신학생유치위원회(거제교회당)
18일(화)	신학생 격려 및 장학금전달식(거제교회당)
23일(주일)	덕계중앙교회 헌신예배인도

##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구제목적(곡성연화교회 부산장애인전도협회)
3. **겨울성경학교** / 22일(토) 11시~16시(예배당)  
주제 : 마태복음과 함께 하는 성경학교  
강사 : 양주동 목사 참석 :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4. **목사동정** / 신학생유치위원회 - 18일(화) 11시 거제교회당
5.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라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금요기도회

- \* 일시 / 3월 7일(금) 21시부터 본 교회당
- \* 대상 / 전교인(자녀들도 함께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 3월부터 수요일(저녁)기도회 대신 금요기도회로 운영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02월	03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구성본	박지영
안 내	최진언	노주혜

##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2.16.(제29-07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 개회

\* 예배에로의 부르심 ↑ ..... 히10:22(교송)  
인도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회 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축복의 인사 ↓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 찬송가38장

##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 신 5장(주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 제10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 인도자  
\* 감사찬송 ↑ ..... 시편118편(1-2)

##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 인도자  
성경봉독 ↓ ..... 마 5:43-48  
선포를위한찬송 ↑ ..... 시편41편  
설교 ↓ ..... 설교자

##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송 ↑ ..... 찬송가643장

##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30장(3-4)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 설교자

##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 찬송24장5a-6b장

## 폐회

\* 강복선언 ↓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교회소식	오후 3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주간기도회	
	개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 예배예로의부름 ↑	.....	시134:2,3(교송)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전 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인도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회 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 축복의인사 ↓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	찬송 2장		
	신앙고백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감사찬송 ↑	.....	시편100-2편(1-2)	금요기도회 금요일 21시(예배당)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	인도자			
성경봉독 ↓	.....	마6:9-13 겔36:20-23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수, 20:00)		
교리문답교독 ↓	.....	소교리101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	찬송47장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월, 19시)		
설교 ↓	.....	설교자	주간성경읽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주일	욥 22-24	마 28
아멘 송 ↑	.....	찬송가643장	월	욥 25-27	행 1
자비사역			화	욥 28-29	행 2:1-36
봉헌및봉헌찬송 ↑	.....	시편145편(1,4)	수	욥 30-31	행 2:37-47
폐회			목	욥 32-33	행 3
* 강복선언 ↓	.....	설교자	금	욥 34-35	행 4:1-22
			토	욥 36-37	행 4:23-37

<b>주일설교를 기억하며(원수도 사랑하라)</b> 1.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2.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3.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환하게 비추기를 <b>곡성연합교회(최지혁 목사·고신)</b> 1.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확신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되게 2.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3. 오후예배와 전도사랑방을 통해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자람이 있도록 <b>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목사)</b> 1. 전도협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장애인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2. 평소 만나는 장애인들과 복음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3. 사무실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정과 환경되게 <b>국가의 안위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b> 1. 국정이 속히 안정되어 이념노선에 따른 국론분열이 잦아들고 이로 인한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게 2. 교회들이 주님의 명하신 뜻을 드러내어 입법부가 창조질서와 백성의 안위를 돕는 정책들 세우게 3.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정치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거룩성 회복하게
--

<b>기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b> (2 - 캐나다개혁교회 성경공부교재에서 발췌)  (이어서) <b>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수 있는가?</b>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병이 들면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면 다음 날에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이 기도의 결과인가요? 기도,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요? 그러나 이 질문은 기도 자체가 간단하고 즉각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지를 발견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해보야 합니다.  <b>의심하지 말라</b>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불려 졌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약1:5-8).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히11:6).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철저히 부패한 자라 할찌라도 말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말한 것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뉘드리하는 이스라엘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사40:27)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양망하며 자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권능과 도움을 주신다’는 요점을 말하였습니다.(사40:31)  <b>인내하라</b> 또한, 성경은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마7:1-12; 참조 눅11:9-10).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며, 끊임없이 두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얻을 때까지 구하여야 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 혹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참, 눅11:13) (계속)
--

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묵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취하십니다.

2.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당신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그곳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별되시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데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에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인간의 감정, 사고, 행동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거룩을 훼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그의 아끼는 종이라도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또한 이 기원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지속적으로 그 거룩함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현실과 인간의 죄악된 현실 사이에 있는 깊은 간격을 친히 건너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며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신 사건인 것입니다.(요1:14).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근본 임무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바르게 서지 아니할 때에 이는 나 자신만 거룩에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늘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2월16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208장	
성경봉독	.....	마 5:43-48	
설 교	원수도 사랑하라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온전함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1. 세상과 구별된 의

당대 유대인들은 언약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언약의 외인들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인들도 근처에 살았고, 로마인이나 헬라인도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

다. 원수라고 해서 꼭 철천지 원수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의대로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를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영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취급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구약성경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만 합니다. 원수를 미워한다는 말이, 혐오하고 증오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굳이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구약성경 안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원수에게 선대하라고는 하지만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잠 25:21).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독특합니다. 아니,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훨씬 더 풍성하게 풀어내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방인들도 자신의 형제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가 다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을 베푸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언약백성이자 천국시민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리나 서기관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오른 뺨을 맞으면 왼 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

려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면 십 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변과 재산에 손해를 보며, 복수를 하고 싶은 본성까지 억눌러가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찌 나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까지 용서해주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품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을 닮은 사랑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하다고 해서 해를 비추지 않으시거나, 불의하다고 해서 비를 그치시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악인에게는 이런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악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그때에 해와 비를 공급받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고 있는 지금도 원망을 품는 걸 보면, 해와 비가 끊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악인에게도 해와 비가 내린다고 해서 ‘만인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수 사랑은 나아가 우리에게 ‘복음전도의 사명’을 요청합니다. 바울 사도는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롬 12:20)”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머리에는 숯불이 쌓입니다. 만일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숯불로 인해 심판을 받겠지만, 그 숯불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를 더 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은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악인들이 나중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멈추어두려고 했습니다. 결국 소돔 성은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유의미합니다. 그는 땅의 모든 족속을 복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런 의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사랑과 의입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에게서 이런 사랑과 의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아버지를 닮아 “온전한 성품”을 갖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똑 닮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똑똑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2월16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19 장	
성경봉독	.....	마6:9-13, 겔36:20-23	
설 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원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와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소고리101문답a)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엘샤다이 야웨 닛시, 샬롬, 이레,...) 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이기에, 당신자신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출20:7)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야웨로 알리셨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하므로 그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역사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웨의 이름을 열국 가운데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그 옛 언약 백성이 야웨의 이름을 더럽히므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로 인하여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세상 중에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겔36:20-23)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이 첫째 기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앞의 기도의 대상에서 알려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히 드러내십니다.(마28:19) 예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첫째 기원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우리의 구원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쳐야 할 찬송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